

글로벌 제주를 위한

#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9



#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7.10~2025.07.16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	7
	▪ 중국	
	- 중국 인민은행, 민영·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발표 .....	7
	- 2025 상하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포럼 개막 .....	7
	- 중국 재정부, 1억 9,700만 위안 투입하여 재해 지역 농업 생산 지원 .....	8
	- 하이난성, 2045년까지 저탄소섬 전면 구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 .....	9
	- 광둥성,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위한 조례 제정 가속화 .....	9
	- 지린성, 민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운수 분야 신규 정책 20개 발표 .....	10
	- 하이난성 주택건설 부문, 네 가지 조치로 녹색 저탄소 전환 선도 .....	10
	- 베이징, 세계적 경쟁력 갖춘 과학 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 .....	11
	- 베이징시, 소비 진작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 행동 방안 발표 .....	12
	- 중국 3개 부처, 산업단지 제로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공동 정책 발표 .....	12
	▪ 일본	
	- 일본, 방일 관광객 대상 분실물 국제 배송 대행 신규 서비스로 신뢰도 향상 .....	13
	- 도쿄도 재정의 허와 실, 1.4조 엔 세수 유출 속 추가 격차 시정 논의에 위기감 ..	13
	- 홋카이도 다이키정 우주항, 아시아 허브 향한 발걸음 속 차기 로켓 유치 모색 ..	14
	- 규슈 지역 수출액, 10년간 65% 증가했으나 주력 자동차 산업 둔화세 .....	15

- 요코하마시립대학, '옛요코하마'와 협력하여 관광 데이터 분석 및 활성화 추진 .... 15
- 돗토리·시마네·아마구치현, 최저임금 개정 논의 착수 속 노사 양측의 어려움 토로 ..... 16
- 아이치현, 지자체와 스타트업 매칭 위한 첫 '거버먼트 피치' 개최 ..... 17
- 도쿄도, 오타구에 아동상담소 연계 거점 신설하여 아동 지원 강화 ..... 17
- 일본 정부, 외국인 정책 총괄 '사령탑' 설치...이시바 총리 제도 점검 지시 ..... 18
-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약 15%에 불과, 재사용 에너지와 분산화가 환경 문제 해법으로 부상 · 18

## ■ 아세안

- 아세안-한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신규 행동 계획 발표 ..... 19

## ■ 미얀마

- 미얀마, 쌀 수출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쌀국수 등 가공품 확대 ..... 20

## ■ 라오스

- 라오스-베트남, 부총리급 고위 회담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합의 ..... 20
- 라오스-일본, 수교 70주년 기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논의 ..... 21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역할 수행하며 법적 기반 강화에 주력 ..... 21

## ■ 태국

- 태국,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의 3각 성장지대 통합 강조 22
- 미국 관세 부과 우려 속 태국, 산업단지 투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 강화 ..... 23
- 태국 정부, 국경 지역 상황 고려해 캄보디아 근로자 체류 기간 6개월 연장 ..... 23

## ■ 필리핀

- 필리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재협상 추진...관세 인하 목표 ..... 24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및 관세 문제 해결 모색 ..... 24

#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 중국

- ✓ 중국인민은행이 민영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 자원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금 조달의 다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 국가데이터국과 텐진시가 공동 주최한 '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디지털 경제 포럼'이 개막함. 이번 포럼은 데이터 유통, 산업 디지털 전환 등 6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간 실질적인 디지털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중국 재정부가 농업농촌부와 협력하여 1억 9,700만 위안의 방재구호자금을 긴급 배정함. 이 자금은 후베이성 등 7개 지역의 홍수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지원하며, 농작물 대체 파종, 시설 복구 등을 통해 농업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을걷이 풍작의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될 예정임
- ✓ 하이난성 정부가 2030년 탄소 정점, 2045년 저탄소섬 전면 구축,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하이난 저탄소섬 건설 방안'을 발표함. 이 방안은 에너지 시스템의 무탄소화와 함께 산업, 교통, 건축 등 6대 체계의 동시적인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포함함
- ✓ 중국 광둥성이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 촉진 조례'와 '데이터 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함. 이는 저고도 경제, 자율주행 등 신흥 분야에 대한 유연한 입법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현대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중국 지린성 교통운수청이 민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가지 신규 정책을 발표함. 이번 조치는 대형 화물 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유료도로 민관

협력사업(PPP) 참여 지원, 국제 운송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민영 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둠

- ✓ 하이난성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이 정책 표준 완비, 과학 기술 연구 강화, 시범 프로젝트 창출, 홍보 강화를 통해 도시 및 농촌 건설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적극 추진함. 이는 '하이난 저탄소섬 건설 방안'의 일환으로, 보아오 제로탄소 시범구의 성공 경험을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 ✓ 베이징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연구 고도화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과학 지능(AI for Science)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 이는 전국 최초의 과학 지능 분야 전문 정책으로,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 베이징시가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심화 개혁 및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함.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을 목표로 하며, 실버 경제, 디지털 소비 등 신규 트렌드에 맞춰 e스포츠 산업 육성, 전시회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혁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함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로탄소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 통지는 조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선도적으로 제로탄소 단지를 조성하고, 금융 지원 및 기술 상용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일본

- ✓ 일본에서 증가하는 방일 관광객의 분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반송 대행 서비스가 등장함. 이 서비스는 복잡한 세관 신고 절차를 대행해 호텔의 부담을 덜고, 종이학을 동봉하는 등 세심한 배려로 관광객의 신뢰도를 높여 일본 관광 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 일본 도쿄도가 풍부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 시정을

위한 추가 세수 재분배 압박에 직면함. 도쿄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서 실제 재정 여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지자체 간의 재원 다툼이 아닌 국가와 지방의 근본적인 세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함

- ✓ 홋카이도 다이키정의 우주항에서 대만계 기업의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며 아시아 우주 허브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딤. 비록 목표 도달에는 실패했으나, 일본 최초의 외자 로켓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다이키정은 지리적 이점과 인프라를 활용해 차기 로켓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임
- ✓ '카 아일랜드'로 불리는 일본 규슈 지역의 수출이 지난 10년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65% 급증했으나, 최근 주력 시장인 북미로의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며 위기에 직면함. 미국의 추가 관세 우려와 대외 경기 변동이 향후 규슈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요코하마시립대학이 관광 정보 서비스 기업 '옛요코하마'와 산학 협력 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력은 학생들이 카세어링, 유동 인구 등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코하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개선 및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일본 돗토리, 시마네, 야마구치현에서 최저임금 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호소함. 정부의 임금 인상 목표와 지역 기업의 경영난 및 물가 상승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각 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 일본 아이치현이 지자체의 현안을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거버먼트 피치' 행사를 최초로 개최함. 관광객 유치, 인프라 보수 등의 과제에 대해 스타트업의 해결책을 공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실증 실험 비용을 지원하여 공공 서비스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 일본 도쿄도가 오타구의 육아 지원 시설 내에 아동상담소 위성 사무실을 신설하여 아동 지원 체계를 강화함. 이는 아동 학대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로, 2026년 예정된 도립 아동상담소 정식 유치에 앞서 현장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일본 정부가 내각관방에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추진실'을 설치함.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험료 체납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부처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지시함
- ✓ 대규모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로 데이터센터(DC)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섬.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분산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 아세안

- ✓ 아세안과 한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심화시켜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미얀마

- ✓ 미얀마 쌀 연맹이 단순 원료곡 수출에서 벗어나 쌀국수, 쌀가루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함.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쌀국수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미강유 등 부산물 활용을 다각화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임

## ○ 라오스

- ✓ 라오스와 베트남이 부총리급 고위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특별한 연대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가속화하고, 전력 및 석탄 무역에 관한 의정서를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심화시킬 예정임

- ✓ 라오스와 일본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고위급 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함.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고위급 교류,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 ○ 말레이시아

- ✓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역내 무역 활성화와 신기술 분야의 법적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존 상법을 현대화하고 포괄적인 AI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활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여 아세안의 발전을 선도할 계획임

## ○ 태국

- ✓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삼각지대(IMT-GT)'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함.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무역 촉진,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인프라 협력도 강화할 방침임
- ✓ 미국의 잠재적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태국산업단지공단(IEAT)이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에 나섬. 피해 예상 기업을 위해 인프라 사용료 면제,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용지 개발 등 장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도 추진함
- ✓ 태국 정부가 불안정한 국경 상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근로자의 체류 허가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함. 이는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됨

## ○ 필리핀

- ✓ 필리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상된 높은 관세율을 재협상하기 위해 통상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함. 특히 코코넛 등 자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건설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 해결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과 집중 협의에 나섬.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풍부한 니켈, 구리 등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모색하며,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b>중국 인민은행, 민영·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민은행 신용시장사 펑리펑 사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민영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금융 자원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영 및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다각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편적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음</li> <li>- 인민은행은 ‘민영 경제 금융 지원 25개 조치’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금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왔음. 그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포용성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34조 4,2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민간 지주 기업 대출 금리는 3.45%로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함</li> <li>- 향후 인민은행은 민영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대출 등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금융 자원 투입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산업 주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중소기업 자금 흐름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을 보급하여 금융 지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임</li> </ul> <p>○ <b>2025 상하이협력기구 디지털 경제 포럼 개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데이터국과 텐진시 정부가 공동 주최한 ‘2025 상하이협력기구(SCO) 디지털 경제 포럼’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유대, 협력의 신공간 개척’을 주제로 개막함. 이번 포럼은 데이터 유통, 산업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응용 등 6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럼에서는 중국-SCO 국가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 발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디지털 기술 혁신과 데이터 자원 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특히 현장에서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과 연관된 12개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li> <li>- 행사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다차원 촉각을 지닌 로봇 손, 국산 운영체제인 기린 시스템, 완전 자동화 농업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이는 중국의 디지털 기술력이 SCO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li> </ul>
	<p>○ 중국 재정부, 1억 9,700만 위안 투입하여 재해 지역 농업 생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재정부가 농업농촌부와 협력하여 중앙재정 농업생산 방재 구호자금 1억 9,700만 위안을 긴급 배정했다고 발표함. 이번 자금은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등 7개 성(자치구, 직할시) 지역의 홍수 및 태풍 피해 복구와 농업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역이 명시됨</li> <li>- 지원금은 주로 피해 농작물의 대체 파종 및 보식, 파손된 농업 시설의 수리, 농경지 배수 시설 정비 등 재해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임. 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을건이 곡물의 안정적인 수확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됨</li> <li>- 이번 조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농업 기반을 신속히 복구하고, 농민들의 생산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하이난성, 2045년까지 저탄소섬 전면 구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난성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하이난 저탄소섬 건설 방안’ 을 공식 발표함.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4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정점 대비 70% 감축하여 저탄소섬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예정임</li> <li>- 방안의 핵심은 전력과 열에너지의 무탄소화, 최종 소비 에너지의 전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형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와 동시에 산업,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6대 체계를 병행 추진하여 체계적인 저탄소 전환 경로를 제시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꼽힘</li> <li>-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운영 분야의 신규 차량을 100% 청정에너지 자동차로 전환하고, 개인용 차량 역시 신규 및 교체 시 100% 신에너지차로 대체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함. 또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과 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탄소 흡수원 확충에도 주력할 계획임</li> </ul> <p>○ 광둥성,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위한 조례 제정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광둥성이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입법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함. 황추핑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은 인공지능 산업 촉진 조례와 데이터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입법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힘</li> <li>- 광둥성은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고 빠른’ 입법 전략을 채택할 예정임. 이는 저고도 경제, 자율주행, 무인 선박, 스마트 의료 등 신흥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유연한 법적 경로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전문가, 인민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전체가 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광둥성 정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현대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린성, 민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운수 분야 신규 정책 20개 발표</b></li> <li>- 중국 지린성 교통운수청이 민영 기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가지 새로운 정책 조치를 담은 방안을 발표함. 이번 조치는 대형 화물 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유료도로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지원, 국제 운송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민영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li> <li>- 새로운 정책에 따라 지린성은 성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화물 운송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운수,公安, 주택도시농촌건설 부문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온라인 원스톱 처리를 실현할 계획임.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진입 장벽도 철폐할 예정임</li> <li>- 또한, 유료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규모 및 건설 난이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영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도로 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참여 공간을 확대함. 여객 터미널의 다기능 복합 공간 전환을 장려하고, 국제 도로 운송(TIR) 기업 육성을 통해 국제 물류 협력도 적극 지원할 방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하이난성 주택건설 부문, 네 가지 조치로 녹색 저탄소 전환 선도</b></li> <li>- 하이난성 주택도시농촌건설청이 ‘하이난 저탄소섬 건설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및 농촌 건설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조치를 발표함. 이는 정책 표준 완비, 과학 기술 연구 강화, 시범 프로젝트 창출, 그리고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으로는 '하이난성 녹색건축 발전 조례'와 '도시농촌건설 분야 탄소 정점 이행 방안'을 통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녹색 건축의 규모화 발전과 제로탄소 건축 시범 사업을 촉진하며, 관련 기술 규범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저탄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li> <li>- 보아오 제로탄소 시범구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커우, 쑤야 등 다른 도시로 제로탄소 건축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임. 또한, 열대 건축 과학 기술 및 제로탄소 건축 기술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여 녹색 저탄소 건축 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li> </ul>
	<p>○ 베이징, 세계적 경쟁력 갖춘 과학 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연구 고도화 행동 계획(2025-2027)'을 발표하며 과학 지능(AI for Science)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2027년까지 공통 서비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개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임</li> <li>- 이번 행동 계획은 전국 최초로 과학 지능 분야를 겨냥한 지방 정부의 专项政策(전담 정책)으로,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응용 분야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개 차원에서 17개의 구체적인 임무를 포함함.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초 과학 연구 및 산업 혁신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는 의지를 보임</li> <li>- 베이징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양자 기술, 신약 개발, 스마트 의료 기기 등 첨단 분야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임. 또한, 국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과학 지능 관련 국제 포럼을 개최하며, 개방형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의 참여와 성과 공유를 촉진할 예정임</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베이징시, 소비 진작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 행동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시 상무국이 소비 공급 최적화와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심화 개혁 및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 을 발표함. 2030년까지 시장 총소비액 연평균 5% 성장을 목표로 하며, 2~3개의 1,000억 위안 규모의 문화·상업·관광·체육 융합 소비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국제 소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임</li> <li>- 이번 방안은 실버 경제, 디지털 소비, 녹색 소비, 귀차오(国潮, 애국 소비)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포함함. 특히 Z세대를 겨냥한 애니메이션, 게임, e스포츠 산업 육성과 ‘e스포츠+’ 소비 모델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소비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li> <li>- 또한, 소비 시장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대형 행사 안전 관리 기준을 혁신하고, 전시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혁 조치를 담았음. 주택 공적금 개인 대출 시 ‘담보 승계 이전’ 정책을 연구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능력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됨</li> </ul> <p>○ 중국 3개 부처, 산업단지 제로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공동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제로탄소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함. 이 통지는 조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선도적으로 제로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임</li> <li>- 정부는 제로탄소 산업단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채널을 활용하고, 지방정부의专项债券(특별채권) 발행을 장려할 것임. 또한, 정책성 은행의 중장기 신용 지원과 기업의 채권 발행을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여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임을 명확히 하였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과제로는 저에너지, 저공해, 고부가가치 신형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전력, 열, 가스 등 인프라의 친환경적 개선, 그리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첨단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본, 방일 관광객 대상 분실물 국제 배송 대행 신규 서비스로 신뢰도 향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분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반송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음. 오이타현 벳푸시에 위치한 ‘로스트 아이템 딜리버리’는 복잡한 세관 신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어 호텔 측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 중임</li> <li>-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분실물 반송 시 단순히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종이학을 함께 동봉한다는 점임.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분실물을 되찾은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호텔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향후 동일한 호텔에 다시 숙박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li> <li>-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분실물 처리 문제는 많은 숙박업소의 골칫거리였으나, 이 대행 서비스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이는 개별 기업의 사업 성공을 넘어, 일본 관광 산업 전체의 서비스 품질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li> </ul> </li> <li>○ <b>도쿄도 재정의 허와 실, 1.4조 엔 세수 유출 속 추가 격차 시정 논의에 위기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요로운 재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도쿄도가 실제로는 다른 지역과의 행정 서비스 격차 시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적인 세수 재분배 압박에 직면해 있음. 도쿄도는 2025년도에 6.9조 엔의</li> </ul> </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세수를 예상하지만,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불교부단체로서 1인당 일반재원은 전국 평균 수준임을 강조하며 반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지자체들은 도쿄도의 약 1.8조 엔에 달하는 재원초과액을 '잉여 자금'으로 지적하지만, 도쿄도는 이러한 산정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함. 주간 유입 인구 300만 명에 대한 행정 수요나 소방 사업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재정 여유가 없다는 것이 도쿄도의 핵심 주장으로 제기됨</li> <li>- 이미 법인사업세 일부 등을 통해 연간 1.4조 엔의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도쿄도 세수의 10% 이상에 해당함. 도쿄도는 추가적인 세수 재분배 조치를 경계하며, 지자체 간의 재원 다툼이 아닌 국가와 지방 간의 근본적인 세수 불균형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li> </ul>
	<p>○ <b>홋카이도 다이키정 우주항, 아시아 허브 향한 발걸음 속 차기 로켓 유치 모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 다이키정의 우주항 '홋카이도 스페이스포트(HOSPO)'에서 대만계 기업 jtSPACE의 로켓이 발사되었으나 목표했던 우주 공간 도달에는 실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최초의 외자 로켓 발사라는 점에서 구로카와 유타카 다이키정장은 "큰 전진"이라 평가하며 우주 산업의 관광 자원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li> <li>- 다이키정은 1980년대부터 항공우주산업 기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동쪽과 남쪽이 바다에 접해 있어 로켓 발사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일본 내 유일하게 수직 발사와 수평 이착륙 모두 가능한 민간 우주항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발사 실적을 쌓으며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함</li> <li>-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스, 퓨처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등 여러 우주 스타트업들이 HOSP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혼다 역시 재사용 로켓 기술 실증에 성공함. 이는 다</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일본</b>	<p>이키정이 관련 기업 집적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아시아의 우주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입증함</p>
	<p>○ <b>규슈 지역 수출액, 10년간 65% 증가했으나 주력 자동차 산업 둔화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 아일랜드'로 불리는 일본 규슈 지역의 2024년 수출액이 10년 전보다 65% 증가한 9조 5,466억 엔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함.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기기 수출이 주도한 결과로,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10년간 2.4배 급증하며 규슈 전체 수출의 성장을 견인해왔음</li> <li>- 규슈 7개 현 중에서는 후쿠오카현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도요타와 닛산의 완성차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렉서스 등 고급차 생산의 주요 거점임. 오이타현은 철강, 사가현은 선박, 구마모토현은 이륜차 등 각 현마다 특화된 수출 품목을 보유하고 있음</li> <li>- 그러나 최근 주력 시장인 북미로의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올해 5월 규슈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는 현지 판매 부진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것임. 향후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변수가 규슈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li> </ul>
	<p>○ <b>요코하마시립대학, '옛요코하마'와 협력하여 관광 데이터 분석 및 활성화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코하마시립대학이 관광 정보 서비스 기업 '옛요코하마'와 산학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카세어링, 공유 자전거 이용 데이터와 유동 인구 데이터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여, 요코하마 관광 시의 교통 수단 개선 및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li> <li>- '옛요코하마'는 도요타 자동차 계열 딜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웹사이트를 통해 요코하마 관광 모델 코스와</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경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 협력을 통해 웹사이트의 광고 효과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매력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코하마 임해 지역은 관광 명소가 많지만 도보 이동의 한계로 인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 이번 산학 협력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광객들이 더 많은 곳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li> </ul>
	<p>○ <b>돗토리·시마네·야마구치현, 최저임금 개정 논의 착수 속 노사 양측의 어려움 토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개정을 위한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동시에 시작됨. 정부가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 목표를 내세우며 임금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각 현의 기업들은 가격 전가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li> <li>- 돗토리현 심의회에서는 노사 양측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을 펼칠 것을 요구했으며, 야마구치현 심의회에서는 노동자 측의 물가 상승 고통과 사용자 측의 미 트럼프 관세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동시에 언급하며 양측 모두 힘든 상황임을 강조함.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li> <li>- 야마구치 노동국장은 정부의 1,500엔 목표 달성 방침을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경제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각 지방 심의회들의 고심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아이치현, 지자체와 스타트업 매칭 위한 첫 '거버먼트 피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아이치현이 현내 지자체가 직면한 과제를 발표하고 스타트업으로부터 해결책을 공모하는 '거버먼트 피치' 행사를 최초로 개최함. 이번 행사에는 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등의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하였음</li> <li>- 행사는 나고야시의 스타트업 육성 거점 '스테이션 Ai'에서 열렸으며,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지역 문제 해결에는 스타트업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피칭 세션 이후에는 참여 스타트업과 지자체 간의 개별 면담 및 교류회도 진행되어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됨</li> <li>- 아이치현은 8월 중순까지 스타트업의 제안을 접수하고, 매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증 실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임. 이는 행정 기관이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됨</li> </ul>
	<p>○ 도쿄도, 오타구에 아동상담소 연계 거점 신설하여 아동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도쿄도가 오는 8월, 오타구의 육아 지원 시설 내에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의 위성 사무실을 새롭게 설치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긴밀하게 공유하여 관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됨</li> <li>- 오타구는 2026년도에 개설될 가정 지원 시설에 도쿄도립 아동상담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위성 사무실 설치 는 그 준비 단계에 해당함. 현장 수준에서부터 도쿄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도립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지원 시설은 지역 사회의 세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력 있는 행정 조치 권한은 없음. 이번 연계 거점 신설을 통해 가정 방문, 위탁 부모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서 상호 협력하며, 아동 학대에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li> </ul>
	<p><b>○ 일본 정부, 외국인 정책 총괄 '사령탑' 설치...이시바 총리 제도 점검 지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정부가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사무국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 추진실'을 공식 출범시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발족식에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사회보험료 체납 등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지시함</li> <li>- 신설된 사무국은 법무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특히 부처 간 세금 및 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 취득 관리, 실태 파악 등 시급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짐</li> <li>- 이번 조치는 체류 외국인 및 방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참의원 선거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선을 그렸으나, 경제재정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 자격 심사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됨</li> </ul>
	<p><b>○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약 15%에 불과, 재사용 에너지와 분산화가 환경 문제 해법으로 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데이터센터(DC) 건설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지역 사회와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일본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효율 지표(PUE</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1.4 이하)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전체의 15%에 불과해, 데이터 센터의 친환경 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은 2030년까지 모든 시설의 PUE를 1.3 이하로 의무화했으며, 중국도 신규 대규모 DC의 효율 목표를 1.25 이하로 설정하는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도 2029년 이후 신설되는 DC에 대해 PUE 1.3 이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을 검토 중임</li> <li>-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홋카이도나 규슈 등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소규모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 설치하는 '엣지 데이터센터' 모델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됨</li> </ul>
아세안	<p>○ <b>아세안-한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신규 행동 계획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과 한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함. 2024년에 격상된 양측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 계획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li> <li>- 신규 행동 계획은 기존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아세안-한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한 공동성명과 긴밀하게 연계됨. 양측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하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함</li> <li>- 행동 계획에는 경제 발전,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인 협력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음. 아세안과 한국은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더욱 통합되고 번영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상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미래가 기대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미얀마	<p>○ 미얀마, 쌀 수출 고부가가치화 전략 추진·쌀국수 등 가공품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쌀 연맹(MRF)이 기존의 단순 원료곡 수출에서 벗어나 쌀가루, 쌀국수와 같은 고부가가치 가공 제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미얀마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되며, 제품 다각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li> <li>-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쌀국수 생산 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있음. 최근 미얀마 쌀 연맹은 한국의 글로벌이슈포럼과 회의를 열고, 한국 기술을 활용한 건식 및 습식 쌀국수 생산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기술 이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 새로운 협력 관계가 예상됨</li> <li>- 이와 더불어 쌀겨에서 추출하는 미강유의 생산 및 수출, 그리고 탈지 미강의 내수 판매 활성화 등 쌀 관련 부산물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2025년 2분기 동안 미얀마는 61만 톤 이상의 쌀과 깨진 쌀을 수출하여 약 2억 1,4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보임</li> </ul>
라오스	<p>○ 라오스-베트남, 부총리급 고위 회담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우옌 치 등 베트남 부총리가 살롬싸이 쯔마싯 라오스 부총리의 초청으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의 특별한 연대와 우호 관계, 그리고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이번 방문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li> <li>- 양국 부총리는 2025년 협력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와 같은 핵심 인프라 사업의 진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2025년 하반기 중점 협력 과제를 논의하며 내년에 열릴 제48차 양자 협력 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기간 중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경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전력 및 석탄 무역에 관한 개정 의정서에 서명함.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게 되었음</li> </ul> <p>○ 라오스-일본, 수교 70주년 기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스와 일본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분르아 판다누봉 라오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과 고이즈미 쓰토무 주라오스 일본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함</li> <li>- 분르아 위원장은 라오스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일본이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해 온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명함. 특히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집권당인 라오스인민혁명당과 일본 자민당 간의 정당 교류 및 협력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향후 관계가 주목됨</li> <li>- 양측은 앞으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투자, 관광,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이번 회담은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li> </ul>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역할 수행하며 법적 기반 강화에 주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될 말레이시아가 역내 무역 활성화와 신기술 분야의 법적 토대 구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중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적으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추진하며 대외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어 기대가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는 국내적으로 1950년 계약법 등 기존 상법을 현대적 기준에 맞게 재검토하고,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표준을 따르는 국제도산법 제정을 추진 중임.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윤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포괄적인 AI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li> <li>- 이러한 법제도 개혁은 거버넌스 개선, 반부패, 인권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 개혁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활력을 모두 갖춘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고, 아세안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li> </ul>
태국	<p>○ 태국,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의 3각 성장지대 통합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외교부가 제58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역내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성장삼각지대(IMT-GT)'의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함. IMT-GT는 세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음</li> <li>- 태국은 IMT-GT 내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법률 통일 등 연결성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있음. 특히 'IMT-GT 이행 청사진 2022-2026'에 따라 경제 회랑 개발, 디지털 무역 촉진, 국경 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임</li> <li>- 이와 함께 태국은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관계 강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음. 송클라-케다 간 도로 연결, 제2 국경 교량 건설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중단되었던 철도 연결 재개를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태국</b>	<p>○ <b>미국 관세 부과 우려 속 태국, 산업단지 투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산업단지공단(IEAT)이 미국이 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36%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강화 조치를 발표함. 이는 5,000여 개에 달하는 공장 운영자들의 경쟁력 약화 및 운영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li> <li>- 산업단지공단은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사용료 면제, 투자 신청 절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중국 등 신규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li> <li>-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국은 100억 바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 라이(약 1,600헥타르) 규모의 신규 산업용지를 개발할 계획임. 또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가격 인하를 검토하는 등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투자 성장을 유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예정임</li> </ul> <p>○ <b>태국 정부, 국경 지역 상황 고려해 캄보디아 근로자 체류 기간 6개월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상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경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들의 태국 내 체류 허가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함.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li> <li>- 이번 결정에 따라 유효하거나 만료된 국경 통행증을 소지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태국에 머물며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됨. 근로자들은 소정의 신청비와 허가비를 납부하고 90일간 유효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된 지역</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내에서 최대 세 곳까지 고용주 변경도 가능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들은 30일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하며, 첫 신고는 2025년 7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됨. 향후 국경 상황이 정상화되면, 연장된 체류 허가를 받은 근로자들은 7일 이내에 태국을 출국해야 하며, 이는 임시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li> </ul>
필리핀	<p>○ 필리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재협상 추진...관세 인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통상 대표단이 양자 간 포괄적 경제 협정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프레드릭 고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발표함.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 17%에서 20%로 인상된 상호 관세율을 재협상하여 필리핀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임</li> <li>- 필리핀 대표단은 특히 코코넛 산업과 같은 자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부과되는 20%의 높은 관세를 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양허 협상을 추진할 방침임. 현재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미국의 공급망 중요성을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높은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음</li> <li>-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높은 관세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무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필리핀이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귀추가 주목됨</li> </ul>
인도네시아	<p>○ 인도네시아,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및 관세 문제 해결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고위 관리들과 관세 및 핵심 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함.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도네시아산 일부 제품에 대한 32%의 높은 관세</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b>인도네시아</b></p>	<p>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집중 협의하기로 합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켈, 구리 등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핵심 광물 분야 협력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고,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함</li> <li>- 이번 협상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에너지, 곡물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임.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을 활용한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